금남로에서

정재현

‘相生’이 광주·전남 사는 길이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말이 되면 모두가 들뜨게 마련이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내년은 올해보다 분명 나은 삶이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춘몽(春夢)일지라도.

하지만, 올해는 그 꿈조차 호사스러운 게 민초(民草)들의 현실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와 생활고,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政爭)에만 골몰하는 정치권 등등…. 여기에다 크리스마스 캐럴 송 대신 울려퍼지는 남북의 포성은 서민의 새가슴을 더욱 졸아들게 하고 있다.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희망의 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연말이다.

희망이 없는 암울한 연말

그래도 시간은 분절되지 않는다. 흐름의 연속이다. 주변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조국과 지역, 내 일터와 가정은 지켜내야 한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필요한 삶의 방식은 상생(相生)이다. 하나 보다는 둘이, 둘 보다는 셋 넷이 힘을 합치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도 ‘상생과 소통’을 부르짖고 있지 않은가. 그 진정성은 두고 볼 일지만.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절실한 것도 광주시와 전남도 간의 상생이 아닌가 싶다. 2011년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2012 여수박람회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 현안사업의 성패가 내년에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대형현안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꼬락서니는 영 아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여수박람회만 해도 성공개최의 필수조건인 각종 SOC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무더기로 탈락했다. 정부의 개최 의지를 의심할 정도다. 다른 현안사업도 여수박람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농촌은 노인만 사는 동네로 전락했고, 중소도시는 교육·의료·문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중증장애도시가 돼 가고 있으며, 지역의 중추도시라는 광주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광주·전남 앞날이 서민들의 삶과 너무도 닮은 꼴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강운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의 몫이다. 이는 강 시장과 박 지사가 지역민들에게 한 약속이며, 유권자들도 이 공약을 믿고 지역을 맡긴 것이다.

두 사람이 난마처럼 얽힌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내 것, 네 것 하며 광주 따로, 전남 따로여선 공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 뿌리이며 경제적으로도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광주가 살아야 전남이 살고, 전남이 발전해야 광주도 발전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주공항 이전이다. 두 사람은 지난 6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자가 처한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갈라서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시장·지사 통합 리더십 절실

물론 광주공항 이전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해관계인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지역 공동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면 방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결국 강 시장과 박 지사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달려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치적·인위적으로 행정이 분리된 지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시·도간 불필요한 경쟁과 비효율로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때로는 심각한 갈등이 불거지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며 시간을 허송하기엔 지역이 맞닥트린 위기가 너무 크고 화급하다.

헛구호에 불과한 상생이 아닌, 진정한 상생의 실현으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잘 사는 서남권 시대를 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강 시장과 박 지사에게 있다. 두 사람에게 절실한 것은 소통의 리더십, 통합의 정치력이다. 그 시험대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될 것이다.

〈논설실장〉

사설

‘노인 돌봄’ 외면하면서 복지 내세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광주 남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예산 부족으로 밀려드는 신청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방문, 월 27~36시간의 가사 등을 돕는 복지사업으로 국비(70%)와 시비(30%)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자치구마다 올해 정부가 예측한 수요 이상으로 신청이 늘면서 예산이 일찌감치 바닥을 드러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 4개 구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 1319명으로, 지난해 798명보다 40% 가량 늘었다. 광산구는 이미 지난 3월에 신청이 끝났고, 북구는 지난 6월 신청이 마감돼 수십 명이 대기 상태다. 동구도 10월 말에 신청이 마감됐으며 서구도 20여 명이 대기 중이다.

이처럼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이 겉돌고 있는 것은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데 있다. 올해부터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던 65세 기초수급자 노인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거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는 데도 정부가 이를 간과한 것이다. 등급 외 판정 노인들만 3288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쥐꼬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주먹구구식 예측, 즉 탁상행정 때문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거나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을 확보해 즉시 지원을 해야 한다. 노인복지 조차 외면하면서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복지예산까지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다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엊그제 칠순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하면 자연인이자 노인이 아닌가.

고삐 풀린 기름값, 갈수록 고달픈 서민가계

기름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21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값이 2년4개월 만에 ℓ당 1800원을 넘어선데 이어 1900선도 돌파할 기세다. 광주의 경우 ℓ당 1800원을 넘어선 주유소는 21곳에 이르며 전남은 49곳에 달한다. 자동차용 경유도 일주일 새 10원 이상 오르며 1600원 선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휘발유 값이 10주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뚜렷한 인하요인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서민들의 삶만 더욱 고달프게 됐다.

비싼 기름값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침체기의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기름값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치솟는 기름값에 신음만 토할 뿐이다. 하지만 입만 열면 서민대책, 서민정치를 외치는 정부나 정치권은 정작 가타부타 말이 없다. 기름값은 서민 가계와는 무관한 줄 아는 모양이다.

기름값 급등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물가불안이다. 이는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기회복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인 셈이다.

지금 폭등하는 기름값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는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록 지금의 기름값 인상이 국제원유가와 환율에 의한 불가피한 요인도 있지만 소비자가격이 국제유가에 제대로 연동되고 있는 것인지, 공장도가가 부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세금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솟구치는 기름값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 원가 공개 등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심상돈

송년회

또 한 해가 가고 있다. 과거에는 망년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언제부터 인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송년회’로 부르는 것 같다. 직장, 학교 등 자신이 현재 속하고 있거나 과거에 속했던 조직을 비롯한 가족, 친지 등과의 모임 등에 송년회 초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중 정말 원해서 하는 자리가 얼마나 될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문패널들을 대상으로 의사들의 송년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올 연말 평균 5번의 송년회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중에서는 3회가 25%로 가장 많았다. 송년회를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없었으며, 가장 적은 참여횟수는 1회였다. 하지만 거의 한 달 내내 송년회 약속이 잡혀 있는 응답자도 있었다.

의사의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송년회에 참여하는 횟수는 20회였고,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많은 연령층이 송년회 횟수도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50~60대가 평균 6.7회, 40대가 6.2회 송년회에 참여해 전체 평균을 상회한 반면, 20~30대는 평균 4.2회로 나타났다. 직능별 편차는 더 컸다. 대학교수 및 전임의들이 평균 6.3회 송년회를 가지는 반면, 전공의와 인턴들의 송년회는 2.8회에 그쳤다. 개원의와 봉직의들은 각각 평균 4.8회와 4.7회 송년회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송년회들 중 마지못해 참석할 수밖에 없는 자리도 적지 않았다. ‘억지로 참석하는 송년회가 얼마나 되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3%가 예상되는 송년회 중 절반 이상에 ‘억지로 참여한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5%는 올 연말 송년회 ‘전부’를 억지로 참여한다고 답했다. 억지로 참석하는 자리가 없다는 응답자는 24%였다. 응답자의 4분의 3이 적어도 1번 이상은 ‘가기 싫은 송년회’에도 참석하고 있다는 얘기다.

흥미로운 점은 송년회 횟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50~60대가 40대와 20~30대보다 억지로 참여하는 송년회 비율이 낮았다는 점이다. 50~60대에서는 억지로 참여하는 송년회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응답이 14.2%였던 반면, 40대에서는 25%, 20~30대에서는 23%로 나타나서 차이를 보였다.

‘송년회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출할 예상 경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9%가 20만원 이내에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답했다. 연령별 분석에서 두드러진 계층은 40대였다. 다른 연령대는 20만원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40대는 유일하게 40만원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100만원 이내 혹은 그 이상을 꼽은 이들도 40대에서 가장 많았다. 한편 송년회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의 평균치를 계산해 본 결과, 약 3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금’으로 비용이 충당되는 송년회도 있을 터이니, ‘사비’를 털어서 모이는 송년회에서의 평균 지출은 8만원보다는 더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 수도 있지만 참석하기 싫은 송년회로 인해 의사 본연의 진료라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동아병원 원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김유곤

특화작목 육성이 지역농업 살린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산품을 개발, 홍보하고 다양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수시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며 ‘돌산갓김치’와 ‘거문도 해풍쑥’을 지역농업을 살리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여수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돌산갓은 현재 1700여 농가에서 연면적 913ha를 재배하고 있으며, 300여 개의 갓김치 제조 가공업체가 있다. 돌산갓의 올 연간 매출액은 9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수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돌산갓김치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품종개발에 착수해 지난 2007년 늦둥이·순둥이·신동이 등 3개 품종을 개발해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권을 획득했으며, 짱돌이·쌈돌이·꽃돌이·자람이 등의 품종은 국립 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출연중이다. 또한 돌산갓 연구 전담계와 돌산갓 육성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돌산갓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전남도 1시·군 1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여수 돌산갓을 대표 품목으로 선정, 2014년까지 원료공급기반 확충, 가공생산시설 확충, 상품개발, 판매망 구축 사업 등 4개 분야에 국·도비 및 시비, 자부담을 포함 총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기농 생산·가공업체 집중 육성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갓김치의 생산과 판매로 연매출액을 1000억 원 이상으로 늘려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수시는 삼산면을 비롯한 섬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제2특산품으로 ‘거문도 해풍쑥’을 본격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쑥차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포장재 등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쑥 가공자동화시스템 구축, 지리적 표시등록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도 출원한다.

거문도는 여수항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30분(117㎞)가량 걸리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거의 없는 온화한 곳으로, 가까운 육지보다 1개월 이상 중부지방보다는 2개월 이상 봄이 빨리 찾아온다. 따라서 12월이면 쑥 새싹이 돋아나 1월 초순이면 봄 내음을 듬뿍 머금은 자연산 쑥이 출하된다. 현재 397농가에서 73ha의 면적에 쑥을 재배해 연간 39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쑥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나물쑥 면적확대, 다양한 쑥차와 쑥 막걸리 개발, 떡쑥 저장고 시설확대, 쑥 체험장 시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토양개량과 우량품종 계통선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농업여건에서도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각 시·군에 맞는 지역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시·군간에 경쟁적으로 같은 소득작목을 재배하는 것은 가격 폭락을 가져오게 된다.

청정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적정 가격 보장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을 육성하고 지도하는 농업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無等鼓

알파독

우두머리 개는 태어날 때부터 몸과 정신의 상태가 다르다고 한다. 소위 알파독(Alpha dog)으로 불리는 우두머리 개는 행동이 항상 적극적이고, 먹는 음식의 양이 많으며, 어미의 보살핌 시간을 많이 요구한다.

수명에 있어서도 자연에서 사는 들개 혹은 늑대 집단을 볼 때 보통 수컷은 평균 수명이 약 4년이지만 알파독은 평균 수명이 10~11년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알파독은 무리에서 가장 먼저 먹고, 가장 좋은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특혜를 누린다. 특히 무리에 속한 여러 암컷과 교미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수컷들은 보통 다리를 하나 들고 누는 오줌으로 자신의 영역과 지나간 자리를 표시하지만,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연에서는 보통 수컷들은 오줌을 눌 때 암컷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한다.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는 것은 오직 우두머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최근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에는, 지난 2008년 말 모스크바 주재 미 외교관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를 ‘알파독’으로 표현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영화 ‘베트맨과 로빈’에 빗대 푸틴을 베트맨, 메트베데프를 로빈으로 풍자한 내용도 들어있다. ‘무리 가운데 가장 지배적이며, 상황을 주도하는 인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연평도엔 포격마저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온갖 이야기와 논쟁이 분분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 안위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마저도 좌고우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식의 분열이라면, 가끔씩은 알파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아파트 발코니 확장 철저 감독으로 대형 화재 예방을

정부에서 아파트 발코니를 개조해도 된다고 발표한 뒤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들 대부분이 화재 등 비상사태발생시 대피공간으로 만들어진 발코니의 용도는 생각하지 않고 공간 늘리기에만 신경 쓰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발코니 화재실험에서 발코니가 있는 집의 경우 1차적으로 불길이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불길이 위층으로 쉽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발코니 공사를 한 뒤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의 경우는 대부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이 더욱 크다. 고층 아파트의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관청의 관리감독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백은희·광주시 북구 각화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